

Voyage of the JKAOH

Bo-Hyoung Jin

Editor-in-Chief

The first object sent from Earth, Voyager 1 was launched in September 1977, is faraway unknown outside the solar system in 2012.

Unmanned satellites launched to the exploration of Jupiter, and Saturn is steadily and silently moving toward the unknown world of faraway. By quietly going forth, we could see outside our solar system, and his travel is expected to continue until 2025.

In 1967,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Oral Health (JKAOH) was launched and published a lot of academic achievements of the researchers. Meantime, more than the total of 1,100 papers have been published, and present in a variety of fields, including prevention & treatment of oral diseases, public health dentistry, oral epidemiology, oral health policy, etc. These achievements will be able to assume as a result of a first place impact factor in the dentistry journals in Korea.

JKAOH constantly challenged in this situation, for example, improved the format of the journal, KoreaMed registration, participation to Synapse.

Through these serial changes, I thought that a lot of people shared the results of the study published in the JKAOH and promote oral health.

On the other hand, it is also needed to be more emphasis to the responsibility of the researchers in this changing environment. Because paper published in JKAOH now is no longer the study in the bookcase, and more people have a chance to share it more easily than ever before. So the people that carried out the study is due to be held responsible for their study. I think that these changes will have a positive impact upon the research.

Like Voyager exploring a mysterious world, and silently moving forward, results in the continued walking of JKAOH are already expecting.

December 2012

대한구강보건학회지의 여정

진보형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편집이사

1977년 9월 발사된 보이저 1호는 2012년에 지구에서 보낸 물체 최초로 태양계를 벗어나 머나먼 미지의 공간을 지나가고 있다.

목성과 토성을 탐사하기 위해 발사된 이 무인 위성은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고도 묵묵히 미지의 세계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고 있는데, 이를 통해 현재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태양계 밖의 세상까지 엿보게 되었고, 2025년까지 앞으로도 계속 나아갈 것이라고 한다.

1967년 창간호를 발간한 대한구강보건학회지는 회원들의 많은 연구 성과를 수록하며 그 모습을 갖추어 나아가고 있다. 현재까지 구강상병예방과 치료, 공중구강보건학, 구강역학, 구강보건정책 분야의 다양한 1,100여 편의 연구 성과를 수록하고 있는 우리 학회지의 영향력은 치의학분야 국내학술지 중 인용지수 1위라는 결과로 짐작할 수 있다.

최근 들어 대한구강보건학회지는 학회지 판형 개선, KoreaMed 등재, Synapse 참여 등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을 시도하고 있다. 이런 일련의 변화를 통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학회지에 실린 연구결과를 공유하며, 구강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연구 성과를 양산하리라고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이런 환경 변화 속에서 연구자들의 책임 있는 연구도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제 우리 학회지에 실린 논문은 더 이상 책장 속의 연구결과가 아니며, 예전보다 더 쉽게 많은 사람들이 이를 공유하게 되었기 때문에 연구를 수행한 모든 사람이 더욱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환경의 변화는 결국 양질의 연구 결과로 이어져 전반적인 학문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묵묵히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보이저호처럼 우리 학회지의 계속적인 여정이 어떤 결실을 맺을지 벌써부터 기대가 된다.

2012. 12.